

서초구 반포동

송하경 현모나미 대표이사 회장

1990년 ~ 모나미 전무
1991년 ~ 모나미 대표이사 부사장
1993년 3월 ~ 모나미 대표이사 사장
2018년 ~ 모나미 대표이사 회장



송하경 모나미 회장, '펜+컬러=에디션' 고급화 전략으로 침체 돌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모나미 볼펜 하나쯤은 갖고 있거나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나미 볼펜'은 많은 인기를 누렸다. 국내 최초 유성볼펜인 '모나미 153' 볼펜을 출시한 기업 '모나미'는 국산 문구 업체 중 대표 주자로 꼽힌다.

프랑스어 '내 친구'라는 뜻의 모나미(mon ami)는 창립자 송삼석 회장이 1960년 회화용 문구류를 생산하는 '광신화학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창업한 것이 시초다. 창업 후 1963년 내놓은 제품이 히트를 치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기업명으로도 일치하는 '모나미' 볼펜이다.

광신화학공업사 시절 발매한 볼펜 '모나미 153'이 공전의 히트를 치자 회사가

름보다 제품이름 '모나미'가 더 유명해지는 상황이 왔다. 그러자 송삼석 회장은 1967년 광신화학공업사 대신에 아예 회사 이름을 '모나미화학공업사'로 바꿨고 1974년에는 현재의 '모나미'로 사명을 변경했다.

검은색 머리(뚜껑)와 흰색 자루를 가진 이 볼펜이 대히트한 덕분에 기업 '모나미'는 발 빠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다. 이후 모나미는 '모나미 153' 볼펜을 비롯한 전략상품을 몇 개 정해놓고 이를 대량 생산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성장시켰다.

설립 후 60년 이상 우리 국민과 함께해 오며 국내 대표적 문구기업으로 거듭난 모나미를 이끌고 있는 인물은 창업주 송삼석 회장의 아들 송하경 모나미 대표이사 회장이다.

2세 경영인인 송하경 회장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거쳐 로체스터대학

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그는 1984년 모나미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상무, 전무, 대표이사 부사장을 거쳐 1993년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2018년 모나미 회장이 돼 모나미를 이끌고 있다.

모나미에게 항상 좋은 시절만 있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마트 기기가 점차 보급돼 필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위기로 다가왔다.

하지만 뛰어난 지략과 도전 의식이 강한 송하경 회장은 이때 다른 전략을 모색했다. 모나미의 해외 진출과 고급화 전략을 진두지휘한 것이다. 그는 독일의 '라미 LAMY 펜'의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보면서 필기구인 펜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펜이 단순 필기도구가 아닌 수집의 대상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이후 모나미는 국민 펜인 '모나미 153'의 고급



청광아트빌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89-1

를 이어가며 역시 완관됐다.

한편 송하경 회장은 '모나미 153'을 비롯한 여러 필기구들의 고급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모나미는 하이패션 컬처 브랜드인 아더에러(ADER ERROR)와 협업한 '블루 펜' 프리미엄 에디션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무광 메탈 소재의 153 고급 볼펜에 아더에러를 상징하는 색인 '제트 블루'를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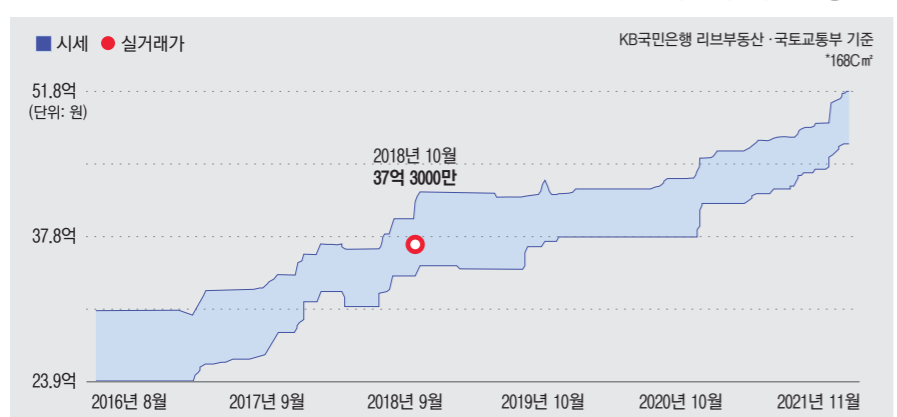
모나미 마케팅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153 시그니처 볼펜에 아더에러의 색을 입힌 특별한 에디션"이라며 "패션과 문구 분야에서 MZ세대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브랜드의 첫 번째 협업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나미가 필기구 시장에서 고급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는 만큼 앞으로 어떤 고급 필기구를 출시할 지 궁금하다.

이동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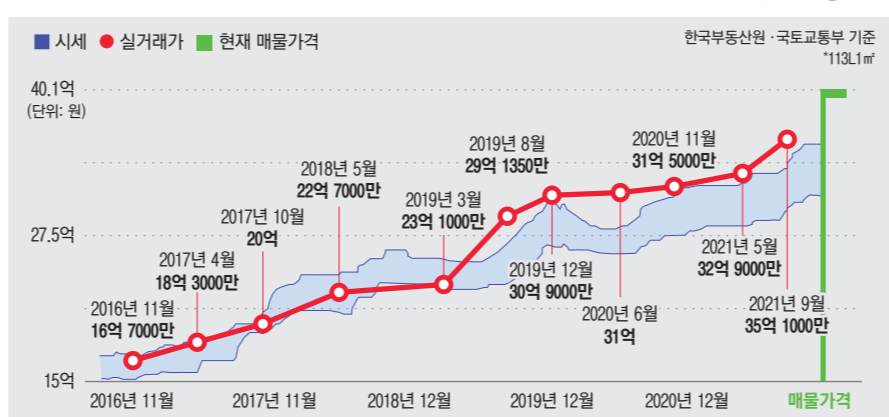
아크리버파크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2



래미안퍼스티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반포SK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2-15



강석민 현)연세대 의학과 내과학교실 교수

강석민 연세대학교 의과대 의학과 내과학교실 교수는 연세대 의과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수료하고 연세대 의과대 내과학교실 전임강사 및 조교수를 거쳐 현재 교수로 일하고 있다. 2016년부터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장도 함께 맡고 있다. 이외에 아시아-태평양 심부전 학술대회 사무총장, 대한내과학회 교육위원회 교육이사, 대한고혈압학회 총무이사 등을 지냈다. 강

석민 교수는 원래 중앙내과에서 암을 연구하려고 했으나 심장마비 환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심부전을 전공으로 택했다. 그는 심장내과 의사로 30년 이상을 봉직하며 질병을 보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환자 중심의 치료로 잠시 환자가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건강을 관리해주는 의사가 되고자 한다.



김영중

전)인천소방본부 본부장

김영중 전 인천소방본부 본부장은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거쳤다. 1985년 제21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문화부를 거쳐 노동부에서 근무 중 소방공무원으로 특채된 엘리트 소방공무원이다. 이후 인천북부소방서장, 인천중부소방서장,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장, 울산소방본부장, 경기도소방학교장, 국민안전처 조사분석관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천소방본부 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인천소방본부 본부장 취임과 함께 예산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며 고성능 특수 장비와 인력을 보강했다. 이어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정비해 인천 지역 내 대형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지난해는 인천의 인구 규모 300만에 공방과 항만 등을 보유해 소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 상향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박창근

현)닥터마틴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박창근 닥터마틴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영등포고등학교를 거쳐 울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서던오리건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9년 워너비테크코리아 마케팅 이사를 거쳐 1992년 질레트코리아에 입사해 1999년까지 근무했으며 이후 2001년 리바이스트라우스 코리아 사장을 맡으면서 패션계에 입문했다. 이외에도 리바이스재팬 사장, 제일모직 부사장, 제일모직 빈폴 컴퍼니장 겸 케 주얼사업부 전무, 성주디앤디 MCM 글로벌 CEO, 네과 CEO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제일모직의 빈폴 라인 익스텐션 사업을 주도하면서 빈폴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에는 닥터마틴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해 레트로 열풍과 유명 해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고객을 사로잡으며 매출을 늘렸고 이를 통해 회사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별 CEO, 네과 CEO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제일모직의 빈폴 라인 익스텐션 사업을 주도하면서 빈폴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에는 닥터마틴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해 레트로 열풍과 유명 해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고객을 사로잡으며 매출을 늘렸고 이를 통해 회사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서해선 한강하저 통과구간 터널 관통... 2023년 1월 준공



11월 경기 고양시 행주내동 대곡-소사 복선전철 2공구 현장에서 국가철도공단 김용두 수도권본부 정(오른쪽 3번째)이 기병행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서해선(대곡~소사) 복선전철의 한강하저 통과구간 실드TBM터널 관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서해선과 경의선을 연계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총투자비 1조 5767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18.3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 사업에 분담금 263억을 투입했으며 일산역 연장운행에는 추가로 86억을 더 투입한다.

한강하저 터널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고양 덕양구 행주내동을 연결하는 실드TBM공법으로 관통됐다.

실드TBM은 원통형 커터 날을 회전시켜 수평으로 굴을 뚫은 후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립해 터널을 시공하며 한강하저와 같은 연약지반에 적합한 시공법이다. 특히 다량의 용수가 발생하는 한강하저와 자유로 하부 복합지층 등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어려운 작업 여건 때문에 서해

선 내 최대 난공사 구간이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협조와 관계자의 철저한 현장 관리로 32개월의 굴착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터널 관통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일산역 연장운행 사업도 탄력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일산역 연장운행을 위한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이며 내달 연장운행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서해선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공항, 부천, 시흥 등 서울남서부 및 경기남부가 철도로 연결돼 고양시가 수도권 교통의 거점지로 발돋움하게 된다"고 말했다.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99억원 투입

경상남도

경남도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총 9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해 지역주민의 사업 건의 민

원 및 사업의 타당성과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평가 위원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도는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98개소에 1542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화전 등 생활

기반사업과 환경문화사업 등을 추진했다.

내년에는 농로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4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3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소 등 총 39개소에 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시군별로는 △창원시 20개소(성산꽃향기 누리길 조성사업 외 19개

소) △김해시 16개소(낙동강둔치 여가복지 조성사업 외 15개소) △양산시 3개소(창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외 2개소) 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하동시 도시교통국장은 "녹색여가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구역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 109만㎡ 누락재산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록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총괄부서에서 일괄 통합해 수행토록 실행체계를 변경한 후 대전월드컵경기장의 6배 규모인 38필지 약 109만㎡ 누락재산을 찾아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에 찾아낸 누락재산은 소유권은 시로 되어 있으나 재산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활용 및 통계보고에서도 누락되는 등 관리되지 않고 있던 공유재산이다.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정밀도론촬영 및 실태조사를 통해 미관리 공유재산 발

굴 및 자료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는 5월부터 부동산 등기자료, 지적공부, 공유재산 관리대장 약 1만7천여 건을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반, 지목, 면적 등 불일치 원인을 파악하고 등재사항을 일일화하는 정비작업 수행으로 전체 공유재산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에 발굴된 재산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귀속, 기부채납 받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공유재산이 대부분이다.

이후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재산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새로운 행정재산으로 활용·관리 될 계획이다.